



조향사 니콜라 본빌이 선보이는

그랑 메종의 새로운 시그니처 향

예거 르쿨트르의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새로운 아티스트 협업

주요 특징:

- 예술적 창의성과 정밀한 과학의 결합
- 예거 르쿨트르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세 가지 익스클루시브 시그니처 향
- 독특하고 세련된 잔향을 남기는 고귀한 성분의 심플한 고농도 포물러

예거 르쿨트르가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새로운 협업을 공개합니다. 호평받는 프랑스 조향사 니콜라 본빌(Nicolas Bonneville)이 그랑 메종을 위한 세 가지 특별한 시그니처 향수를 선보입니다. 이번 협업을 통하여 니콜라 본빌은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하는 오리지널 향수 포트폴리오를 통해 메종의 후각적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했습니다.

고전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다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위치메이킹과 예술 분야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위치메이킹 외의 분야에서 창의성, 전문성, 정밀성이라는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는 예술가, 디자이너, 장인들과 협업을 촉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전 예술이 정적이거나 과거에 얽매어 있다는 인식에 도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주요한 원천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고전으로 불리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는 혁신으로 여겨졌듯이,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형태와 기법이 새로운 소재와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는지 탐구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선사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몇 년 동안 위치메이킹 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장인들과 협업을 시작했으며, 창의성에 관한 유사한 가치와 비전을 지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이들 아티스트는 창의성의 기반으로서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지평을 탐구하며, 위치메이킹과 고전 예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표현하고,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며,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Made of Makers 커뮤니티는 현대 미술 및 미식, 음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아티스트 지문(스위스)과 마이클 머피(미국), 기욤 마망(프랑스), 레터링 아티스트 알렉스 트로슈(스페인/미국), 페이스트리 셰프 니나 메타예(프랑스), 믹솔로지스트 마티아스 지루(프랑스),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한국), 뮤지션 토키오 마이어스(영국), 멀티 미디어 아티스트 브랜디 웨딩거(미국), 셰프 히만슈 사이니(인도), 스트리트 라이트 페인팅 아티스트 로이 왕(중국)과의 협업을 선보였습니다. 니콜라 본빌과의 새로운 협업으로 Made of Makers 협업 포트폴리오에 향수 분야를 추가합니다.

향기로 사로잡다

뛰어난 재능의 조향사로 인정받는 니콜라 본빌은 전통적인 기술과 아방가르드한 기술, 진귀한 에센스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천연 재료를 혼합하여 완성한 특별한 향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12 세 때 프랑스 향수의 본고장인 그라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향수와 사랑에 빠졌고, 이 경험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그는 집에서 직접 향수 실험을 설계하며 독학으로 조향사의 기량을 키워나가며 조향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커리어 초창기에 조향사 자크 모렐과 그 이후, 프란시스 커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니콜라 본빌은 조향에 있어 그의 감각적인 통찰력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혁신을 결합합니다. 그의 작업은 고전적 코드와 문화적 경계를 넘어, 향과 재료의 새로운 연관성을 탐구하는 방식이



돈보입니다. 니콜라 본빌은 “향수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블렌딩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향수를 제작할 때는 고유의 후각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과도하게 희석하지 않고 원료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ss is more'라는 원칙에 따라 향의 선명도와 깊이감을 유지해야 본래의 특성과 특별함을 지닌 유일무이한 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창의성과 정밀한 과학의 결합

예거 르쿨트르의 후각적 아이덴티티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향수 분야와 워치메이킹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탐구합니다. 두 예술 형식 모두 심오한 예술성을 공유하고 전통과 혁신이 균형을 이루며 정밀성과 디테일에 좌우되는 정교한 분야입니다.

각 타임피스의 용도는 단순한 기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워치는 평범한 도구가 아닌, 개성과 스타일 그리고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향수는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기억, 기분,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공예술 모두 착용자에게 감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 깊이 외에도, 두 분야는 전통과 혁신 간의 섬세한 균형을 구현합니다. 워치메이커는 종종 수 세기 전부터 사용되어 온 기술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최첨단 소재와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합니다. 마찬가지로, 조향사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추출 과정과 새로운 성분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밀성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두 분야의 핵심입니다.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기어와 스프링, 부품들이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향수 제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전체 구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각 성분을 엄격하게 측정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워치메이킹과 고급 향수 제작은 모두 장인 정신과 정밀성, 창의성을 결합하여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와 개인적 감성을 지닌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오리지널 향수: 향기로 표현되는 파인 워치메이킹의 정밀성



예거 르쿨트르를 위해 니콜라 본빌이 제작한 세 가지 시그니처 향은 다른 향수와는 차별화된 오프 퍼퓸머리(haute perfumery)를 선사합니다.

- **간결한 포물러** – 적은 수의 성분을 사용하면 각 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명확하고 세련된 향수 프로필이 완성됩니다. 이렇듯 미니멀한 접근 방식은 각 성분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고 조화로운 밸런스를 보장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답게 진화하는 순수하고 간결한 향기가 탄생합니다.
- **고귀한 성분** - 향수에 사용된 대부분의 진귀한 재료들은 현대적인 추출 방식을 통해 각 재료들의 특성이 보존됩니다. 전통과 현대를 혼합한 이 향수들은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필리핀, 아이티, 남미 등 먼 곳에서 유래한 오래된 원료 성분을 결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 **고농도** - 각 제형에 한 가지 주요 성분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하나의 강렬한 향기에 균형 잡힌 뉘앙스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 향수의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는 선명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탑, 미들, 베이스 노트를 통해 각 단계에서 정교함과 깊이감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진화하는 시그니처 향수가 탄생했습니다. 탑 노트는 풍부하게 오래 지속되는 미들 노트로 부드럽게 전환되어 기억에 남는 깊은 베이스 노트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듯 세심한 구성은 풍성하면서 세련된 잔향을 만들어내며 향수를 뿌린 사람이 자리를 떠나도 매혹적인 여운이 감도는 우아한 향기를 남깁니다.

더 타임리스 스토리즈(THE TIMELESS STORIES)는 거친 폴로 경기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를 제작하며 탄생한 전설적인 타임피스이자, 메종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리베르소 위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무 향과 가죽 향은 마구간과 안장을 떠올리게 하며, 바이올렛 리프로 시작되는 향기는 세심하게 다듬은 폴로 경기장의 싱그러운 잔디를 연상시킵니다. 진귀한 오리스로 부드럽게 감싼 미들 노트는 리베르소의 두 가지 본질을 나타냅니다. 바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외관과 세련되고 섬세한 내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더 어코드의 베이스로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고급 향수의 진귀한 성분 중 하나인 오리스 뿌리줄기는 세심하게 통제된 조건에서 2 년 동안 건조되어야 자연적인 효소 반응을 통해 독특한 향기를 발산하며, 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장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더 셀레스티얼 오디세이(THE CELESTIAL ODYSSEY)는 앰버 및 스파이시 노트가 특징으로, 위치메이커들을 항상 매료시켜 온 세 가지 천체인 달과 태양, 별에 경의를 표합니다. 향은 하트 오브 파출리의 투명한 달빛으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미네랄 노트의 물결 속에서, 앰버 우즈는 앰버그리스의 관능미를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앰버그리스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탄생한 자연의 산물로, 고대 항해자들의 여행을 인도해 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상징합니다. 눈부신 별처럼 감각적이고 매혹적인 베이스 노트의 바닐라는 태양처럼 화려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바닐라 타히텐시스 향은 수퍼플루이드 크리스탈 엑스트랙션이라는 최첨단 CO2 추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 마지막에 증발하는 중성 가스를 사용하여 보존된 성분의 향을 드러냅니다.

더 프리시전 파이어니어(THE PRECISION PIONEER)는 우디 및 스파이시 노트가 특징이며 매뉴팩처의 중심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인센스 노트로 시작되는 향은 강한 화력을 통해 원자재를 기술과 정밀함으로 변형시키는 대장장이로서의 메종의 기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이브런트 우드로 더욱 강렬해지는 향기는 위치메이커의 작업대를 연상시킵니다. 이 향수를 위해 특별 제작된 다양한 우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바이브런트 우드 향이 특징입니다. 수천 년 된 전통에서 현대성을 끌어낸 향수는 시더, 구아약, 오드우드진귀한 에센스를 앰버 어코드로 녹여내,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공예술과 최첨단 기술 사이의 가교가 되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인 매튜 르 보이어는 “위치메이킹과 마찬가지로, 향수 예술도 창의성, 과학, 정밀성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을 통해 니콜라 본빌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니콜라 본빌은 독학으로 얻은 재능과 예술적 비전을 통해 다양한 분야 및 문화에 걸친 장인 정신의 융합을 기리는 프로그램에 새롭고 흥미로운 관점을 선보입니다. 그는 고급 향수 세계의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면서 예술계와 그랑 메종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유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랑 메종의 또 다른 시그니처가 될 니콜라 본빌의 세 가지 향수는 고객에게 특별 제공되며 향후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니콜라 본빌 소개



프랑스에서 출생 및 성장한 니콜라 본빌은 12 세 때 세계적인 향수의 중심지인 그라스를 여행하던 중 향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향수 제작에 매료된 그는 실험을 통해 기술을 독학하기 시작했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자크 모렐과 프란시스 커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향을 완벽하게 마스터 하기 위해 많은 곳을 여행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다양한 천연 재료를 탐색하였습니다. 니콜라 본빌은 파리의 정원에서 다양한 식물과 꽃을 재배하는 열정적인 정원사이며,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습니다. 미술 애호가인 그는 워홀(Warhol), 해링(Haring), 존원(JonOne), 뱅크시(Banksy)와 같은 팝 아티스트 및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일상적인 오브제를 재활용하고 도시에서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경쟁을 높이 평가하는 그는 자신의 예술적 성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향인 르망에서 열리는 유명한 24 시간 레이스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조향과 모터스포츠, 두 가지 모두의 완벽한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24 년, 니콜라 본빌은 그가 최근에 선보인 향수 중 하나로 프랑스 향수 재단(Fragrance Foundation France)의 니치 향수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Made of Makers 소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워치메이킹 이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시계 제작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그랑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크리에이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